

여수 도성마을 '하소연 10년'

마을 배수펌프장 누적 전기료 1억 육박 여수지방해수청·여수시 관심지원 요구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시 울촌면 신 품리 도성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째 분뇨 악취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슬레이트, 여수산단에서 날아드는 매연과 분진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마을에 조성된 배수펌프장 수문 보수와 전기요금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해양수산부와 여수시, 도성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도성마을 배수펌프장은 지난 2002년 광양항 3단계 준설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 당시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시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 2010년 6월 도성축산영농조합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배수펌프장 가동을 위한 한 달 전기요금이 많을 때는 100만원 이상 부과돼 올 3월까지 마을이 부담한 누적 전기요금은 1억원에 육박하는 9,400만원이었다.

설학순 도성마을 이장은 "조성 당시와 달리 도성축산영농조합은 유명무실해졌고 배수펌프장 바다 쪽 수문 개폐가 잘 안되어 최근 마을기금 1,500만원을 들여 수리했다"며 "광양항 3단계 준설투기장 가호안 공사이후 쌓인 개

펄 때문이라고 생각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에 개펄 제거와 전기요금 지원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지방해수청은 이마을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 '배수펌프장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이 아니므로 수문 주변의 개펄 제거 등 수리는 곤란하나 추후 육지 쪽의 수문을 작동시켜 바다 쪽 수문 개폐 상태 등을 확인 후 개펄 제거 여부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관리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축산업자에게 그 책무가 있어, 해수청은 전기료 지원 및 부담은 곤란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수지방해수청 항만건설과 담당 계장이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대인 25일 오후 현장을 방문했다.

여수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펌프장 수문 수리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아직은 없고 악취와 분뇨 등 환경과 주차장, 빈집 정비 등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여수시 총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성마을은 1920년대부터 한센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1940년대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외부로부터 차단됐다. 1970년대부터 철조망은 걷혔지만 지속적인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아 왔다. 현재 95가구, 217명이 살고 있다. 지금은 축산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비한센인도 일부 들어와 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여수시 신품리 도성마을 설학순 이장이 고장이 잦은 마을 배수펌프장 바다 쪽 수문을 가리키고 있다.

여수산단 오염 배출 조작 응분의 책임져야

기지사첩



박재영 국장
동부취재본부

한해 90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 중 한 곳인 여수국가산단 주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생을 외치는 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수치를 조작한 것은 대시민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적발된 4곳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측정값을 축소·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에 떨며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중 국발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 이들 사업장과 업체는 전 국민을 속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가뜩이나 외지사람들은 여수산단에서 넘어오는 공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선입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 사업장과 업체는 전 국민을 속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가뜩이나 외지사람들은 여수산단에서 넘어오는 공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선입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산단 대기업들의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 고려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측정을 대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기 인구가 감소세인 지역 이미지를 나

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여수산단의 각종 환경안전사고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잠깐 관심을 얻고 사라지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도 담당 직원만 문책을 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언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산단 대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요청해왔던 여수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생을 부르짖는 대기업들의 이중플레이에 철저히 능라돼 왔음이 밝혀졌다.

산단 대기업들의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 고려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측정을 대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기 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본다.

권오봉 여수시장 민주당 복당 오늘 결정

중앙당 최고위 결과 관심...지역위원회는 반대 입장

무소속 권오봉 여수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최종 승인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권오봉 여수시장의 복당을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 판단을 거쳐 권 시장의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변수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과 을지역위원회가 권 시장의 복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여수갑을지역위원회는 2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권 시장의 복당을 불허해 달라며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냈다.

지역위는 건의문을 통해 "권오봉 시장은 입당한 지 1년도 안되어 지난해 6

·13지방선거 여수시장 경선과정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수시장에 당선됐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가 낙선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권 시장이고 당과 당원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권 시장이 여수시장으로 재입당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시의원들과도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통행식의 불통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수갑을지역위 운영위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권 시장의 복당을 승인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과 적폐정산을 바라는 촛불정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복당 결정은 앞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중앙당 자격심사위까지 통과돼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지만, 경선 포기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복당을 주장해 왔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보성경찰 시내권 생활도로 30km 속도 제한

보성경찰서는 25일 보성군 읍내읍사무소에서 이장단협의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속도5030협의회'가 추진중인 주택가 보행위주 도로 30km/h 속도제한 정책과 관련해 보성 읍내권

보행위주 도로 전 구간을 30km/h로 속도 제한하는 생활도로 구역 설정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성경찰서는 그동안 시내권 각 도로마다 30km/h 부터 60km/h까지 같은

도로 형태에 다른 속도 규제로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았다.

특히 시내권 보행자 도로 전 구간을 30km/h 생활도로로 설정해 교통안전 심의회 및 전남경찰청 승인을 받았으

며 보성군청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정순 경찰서장은 "이번 시내권 보행자 위주 도로 속도제한 구역을 통일하는 등 각종 시설 정비와 보강을 통해 보행약자인 고령주민들에 대해 보다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구례 교육발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부모 경청 올레' 개최

구례군이 최근 구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부모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구례교육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 경청 올레'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체 학부모 50여명과 구례군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구례교육 방향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학부모 경청올레'에선 인재육

성기금 장학금, 도서관 이전 설립문제, 아이들의 놀이 공간 문제, 학교 청소 및 미세먼지,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통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이원화돼 있으나 군청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 구례 교육발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구례군이 최근 구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구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 경청 올레'를 가졌다.

클릭! 고흥 소식



고흥 2019 자원봉사학교 운영

고흥군은 자원봉사단체 불런투어 캠프를 시작으로 2019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원봉사학교는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고흥군 등록자

원봉사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 불런투어 캠프'와 고흥군 산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희망나눔디딤돌교실'로 각 분기별로 운영된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곡성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곡성군은 최근 목사동면에서 군민 생활현장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했다. 목사동면에서는 평리3구 버스 승강장 설치, 공복2구 유선각 건립 등

10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유근기 군수는 "곡성군의 700여 공직자가 군민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한국사료협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결의

한국사료협회는 최근 순천 승주 CC 동백출에서 조충훈 회장을 비롯한 이사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결의 및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사료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지난 10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 내용을 전